

역사도시 경주의 경관정체성에 관한 연구 I

-고대 신라시대 왕경 경주의 경관요소 특성 연구를 통한 경관정체성 규명을 중심으로-

A Study on identity of scape for Historical city, Gyeongju

- With a characteristic of landscape elements of Gyeongju in the Silla period -

홍 사 철 | Hong, Sa-Chul

정회원, 서라벌대학 건축리모델링과 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s

Thanks to the historic sites, the identity of historical landscape of Gyeongju is definitely recognized. When explaining, in other words, the identity of urban scape, we have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refore this study is tried to understand the urban scape form and meaning of the historic city Gyeongju, futhermore to find out the identity of urban scape, catching hold of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by periods. The research was proceeded through the classifying the concept of Urban form by periods and the basic ideology and adopting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at that time with the literatures and maps in the Silla period. And then tried to find out the identity of landscape with the link between the concepts of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and that of Urban form in chronological or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relativeness between city and natural environment, type of the Grid - Pattern on urban form, basic ideals were inspired by Buddhism.

Keywords

Identity of scape, Gyeongju, Historical landscape, Representative landscape

키워드

경관정체성, 역사도시 경주, 역사경관, 대표경관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깊이는 깊다. 역사와 문화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축적된 경주의 물리적, 정신적 유산과 문화가 풍부하다는 것으로, 이 깊이는 국내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주만의 중요한 가치이다. 문화를 가진 도시의 자궁에서 나오는 향취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항상 경주에 관심을 갖고 경주를 방문하고자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심의 원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주에 대한 도시이미지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이미지의 매력을 도시경관(都市景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매력의 궁극적 경지를 도시경관의 정체성(正體性)이라는 개념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주의에 입각한 난개발로 인한 경관의 파괴와 절대보존이라는 경직된 경관의 보존으로 인하여 현대의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경주만의 도시경관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체성의 위기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주 도시경관 정체성 혼란은 도시이미지가 차츰 나빠져 관광 외에 뚜렷한 발전 동력이 미미한 경주로서는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의 하락, 관광인구의 꾸준한 감소 등의 현재 경주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의 역사 경관정체성을 확립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데 있다. 역사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경관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도시 경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높아진 도시경쟁력은 도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에서 이다.

1.2 연구의 방법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가시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측면인 도시 형태에 의도된 조성자의 의미와 동시대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통해 경관에 부여하고 느끼는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읽어 낼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시대의 대표경관을 규명하고 당시의 도시형태 특성의 파악과 함께, 이면에 숨어있는 당시 도시조성자의 의도나 실제 거주자의 반응 즉, 인간이 경관에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파악하여 역사도

시 경주의 도시경관 정체성을 규명하려 한다. 연구의 세부적인 방법은 ① 우선적으로 도시의 조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에 대한 관념인 조성 의도나 의미를 파악하고, 저반에 깔려있는 문화와 사상 등을 파악한다. ② 이 관념이 형상화된 실제 도시의 모형이 된 도시형태의 의미 및 실제 사례를 파악해야 하며, ③ 그 시대의 대표경관을 문헌이나 고지도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선정한다. ④ 실제적으로 도시경관을 느끼는 시민들의 뇌리에 인식된 도시이미지나 장소성을 가진 공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1.3 연구의 범위

경주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층구조의 도시이다. 각 시대별로 정립된 도시경관들은 여러 요인들의 개입으로 생성과 소멸을 하며 그 흔적위에 새로운 도시경관이 구성되어 각 시대별 경관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관의 변화는 도시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고대 신라시대(삼국시대), ② 통일신라시대, ③ 고려, 조선시대(중세), ④ 일제강점기(근대) 까지를 역사경관 시기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그 이후를 현대 경관시기로 분류한다. 이번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대 신라시대(삼국시대)가 된다.

연구의 범위의 공간적인 한계는 신라왕경의 중심이었던 경주의 도심이며, 주 관점은 건축,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주가 될 것이다.

2. 본 론

2.1 가시적 도시경관 - 대표경관

특정 도시의 공공이미지를 구성하는 이러한 여러 경관요소들 중에는 시민들이나 방문자에게 특히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경관 즉 대표경관이라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공공주민들이 그 도시 내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특징적인 경관요소로서 도시 전체의 경관과 그 사회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도시의 특징적 산이나 스카이라인, 도시의 대표적 전경, 특징적인 건물과 거리나 광장, 나아가서는 전체 도시의 특징적 평면 형태라든가 하는 도시의 얼굴과 같은 곳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한도시를 방문하거나 오래 살았을 때, 그 도시에는 특히 눈에 띄거나, 인상적이어서 오래 기억되는 경관 또는 장소들이

있다. 이 중에 명물은 보통 가식성이 높은 시각대상인 반면, 명소는 주로 공공적 활동성이 높은 체험 장소로서 구별된다. 이들 양대 경관유형들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중요지점들로서 통틀어 대표경관이라 할 만한 곳들이며 이를 세분하여 대표전망, 대표가로, 대표장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그 형태적,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의 도시 성격을 대변하는 도시정체성을 구성하는 기간적 요소들이다.

2.2 의미적 도시경관

또 하나의 관점은 도시경관미의 근거를 그것에 내재하는 의미에 두어 궁극적으로 도시경관을 이러한 사회·문화적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보려는 태도이다. 한 문화권 안에서는 도시의 구체적 형상 조성 이전부터 조성자나 시민은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면서 도시조성의 모형¹⁾ 역할을 하는 특정의 '원형적 도상(archetypal scheme)'이나 '추상적 도형(conceptual diagram)'이 존재하며, 실제 형성된 도시의 형상은 이들 '도시도형(conceptual diagram)'의 형태와 의미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도형은 도시조성의 모형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심미적으로 평가하는 인식 잣대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특히 보다 공유된 가치관을 가졌던 전근대사회의 여러 도시형태와 경관의 형식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입증되기도 하였다. 도시의 모형이 되었던 추상적 도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인도의 만다라(mandala)나 중국의 홍범(洪範)등이 있다. 우리나라 정주지의 형태를 지배했던 풍수도나 근대이후의 도시계획도 같은 것들도 정주지 조성의 보편적 모형 역할을 해 왔으므로 도시도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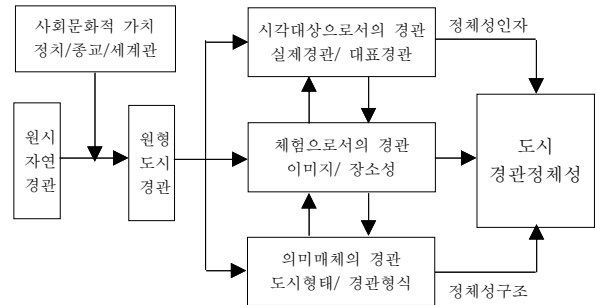
2.3 체험적 도시경관

이미지, 장소성, 정체성 등으로 표현되는 경관특성들은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라는 환경연구 패러다임의 주된 개념들이다. 이들 개념들은 보이는 경관의 모습 그 자체보다도 그 장소에서 오랜 체험을 통하여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전체적 분위기를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 의해 일정 기간 체험됨으로서 해서 가치와 의미가 붙여진 특정 공간을 우리는 보통 '장소'라 부르고 그러한 인간적 의미를 갖는 공간의 성질을 장소성이라 한다.

1) Lynch, The Image of The Time and Place in Environment Design, M.I.T. Press, 1990

체험적 특성이 강한 부분경관으로서 대표경관은 특정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간적 요소나 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해 앞서의 도시도형은 주민들의 누적된 도시생활 속에서 서서히 체득하는 전체 도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경관정체성의 골격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경관의 체험적 측면은 별도의 차원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시각대상으로서의 대표경관이나 의미매체로서의 도시도형 양자의 모두에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인간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구조와 요소의 형태와 의미들은 이들 양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경관정체성 구성 인자 및 구조²⁾



3. 한국 고대도시의 기원

3.1 도시입지방식

우리나라가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현 요령성의 '오녀산성(五女山城)'에서 시작하여, '국내성(國內城)'을 거쳐 '장안성(長安城)'에 정착하였으며, 백제는 현 몽촌토성(夢村土城)으로 유력시되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서 시작하여 '웅진성(熊津城)'을 거쳐, '사비성(泗水城)'에서 백제 멸망을 맞게 되고 신라는 경주에서 시작하여 통일신라까지 천년의 수도를 지켜왔다.

고대국가의 수도의 초기는 부족국가 때의 연장으로 부정형의 형태인 소규모의 토성에서 시작하였으나 국가적 체계가 잡히면서 본격적인 도성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도시 형식은 중국의 형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지형과 정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도성은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으며, 고구려는 낙랑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형식으로 발전시켜 배후에 산성을 가지고, 그 밑에 도성을 축조한 방법을 쓰고 있다.

2) 김한배, 우리도시의 얼굴 찾기, 태림문화사, 1998,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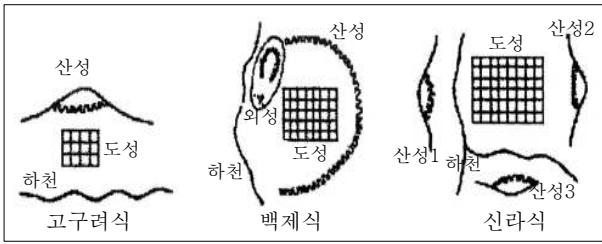


그림 1. 삼국의 도성방식

백제는 이러한 고구려 양식을 개조하고 대륙양식을 혼합하여 백제식 도성계획을 성립시켰다. 고구려의 분리형 도성제에서 생기는 방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분리형의 산성과 중국의 시가지를 포위하는 축성법을 절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의 아스카에 받아들여져 고대도시경관의 특징이 되었다.³⁾

신라는 초기에 금성의 배후에 남산을 둔 고구려 양식이었으나 그 후 신라식의 삼산성에 둘러싸인 도성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신라는 금성, 월성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 그 속에 왕궁을 만드는 형식으로 도시전체를 둘러싸는 나성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 도시 주위의 산 정상에 산성을 만들어 나성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3.2 도시형태

평양성과, 경주는 최근 밝혀진 사비성의 예처럼 정방형의 격자형을 가로구성의 기본으로 한 도시형태가 고대 우리나라에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 고대국가들의 도시형태 거의 모두가 방형을 기본으로 정형적 패턴을 공동으로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원리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의 도시도형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동서양을 막론한 고대도시들의 일반적 특징인 정형의 격자형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주는 통일신라 이후 주작대로를 주축으로 하는 당나라 장안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함께 점점 판명되어 가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신라시대의 구조오소경(九州五小京)의 도시들에 까지 이러한 패턴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들이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⁴⁾ 이러한 사실들로 한국 고대도시들의 전반적 도시형태내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경관의 형식은 방형을 중심으로 하는 정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中村春壽, 日韓古代都市計劃 東京, 大興出版, 1978, pp315-342

4) 박태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 제18집, 충남대학교, 1987, pp4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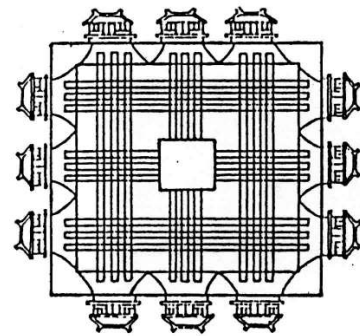


그림 2. 주례고공기의 도성도⁵⁾

4. 고대 신라왕경의 도시경관

4.1 고대 신라의 도시형태 구성의 배경

(1) 신라인의 우주관과 만다라

신라인의 공간 인식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사람은 하늘에 제사하는 구조하고 설명하는 하늘과 땅의 2분 구조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해양관념이 포함되어 지상, 천상, 해양의 3차 구조로 보고 있기도 하다.⁶⁾

박혁거세, 탈해, 김알지, 김수로 등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탄강설화로 하늘을 중시하고 산은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등의 제사를 행하여 산악숭배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관념은 수로부인의 설화나 문무왕을 수장한 점, 감은사, 망해사 등의 연기설화, 용궁, 용연(만파식적) 등이 그것이다. 오악은 고, 중고기의 경주 주변의 산악에 관련한 오악사상이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위(서악은 선도산, 남악은 함월산, 동악은 토함산, 북악은 금강산)를 결정하는 한계가 되었다. 이러한 화엄경의 만다라는 오행사상과 오방위를 형성시켰다. 즉 7-8세기의 신라인들에게는 동, 서, 남, 북의 사방과 그 중앙에 부처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한다.⁷⁾

만다라는 비로자나불사상에 의해서 재래 신앙의 양상이 통일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악사상과 그례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사신도 만다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음양오행의 공간적 표현은 2(陰陽), 3(陰陽+中心), 4(四方), 5(四方+中心)의 형태로 전개된다.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중심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기본도형에 인간을 중심적 위

5) 이상구,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62

6) 현용준, 신라종교의 신연구, 경주시, 1984

7) 이기영,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본 7-8세기 신라 및 일본의 불국토 사상, 한일문화교섭사 연구, pp.103-137

치로 포함시킬 때 그 공간은 객관적 대상적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각과 체험, 사고와 행동이 개입되는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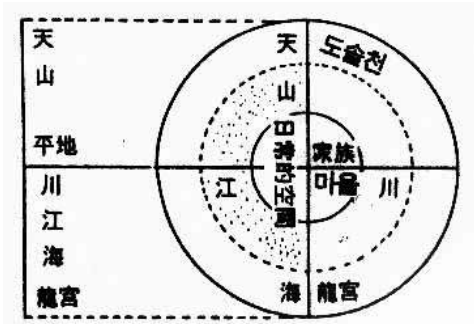


그림 3. 신라인의 공간개념⁹⁾

(2) 신라 문화의 근원

진한지역의 12소국 중 사로국이라는 부족연명체가 발전하여 형성된 신라의 문화는, 고고학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통시대적으로 고찰해볼 때 다양한 문화체계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문화는 신라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인 샤머니즘으로 화랑도 등으로 변형, 발전된 형태로 지속되었다. 여기에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가 유입되었다. 다음으로 외래문화의 유입이 신라의 문화의 근원인데 중국의 영향과 함께 서역(인도, 이슬람, 기타 동남아)의 문화를 특히 불교문화와 관련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확인된다. 즉, 고대 신라의 세계관에 바탕이 되었을 자생적, 외래적 문화 유형은 샤머니즘과 서역문화, 중국문화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세계관들이 각기 고유한 공간 도형의 형식을 통해 신라왕경의 형태와 경관형성에 각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¹⁰⁾

4.2 고대 경주 자연환경의 조절

왕경에 도시계획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되는 5세기말부터 6세기 초 이전까지 경주는 대규모의 주거지가 들어서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다만 하천의 범람 또는 흐름으로부터 안전한 구릉성 대지 등 제한된 공간만 주거 공간 또는 묘역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핵심적 공간인 월성·안압지·전랑지 등이 왕경의 남쪽과 동쪽에 치우쳐 있으며, 거의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왕경의 북쪽과 서쪽지역이 묘역으로 사용된 원인

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초기에 경주분지의 안전지대는 거주공간이 아닌 묘역으로 기능하였으나, 이후 신라인들은 경주분지 전 지역을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키게 되었다.



그림 4. 신라의 하천과 숲의 조성

경주분지가 주거공간으로 기능하는데 있어 최대의 위협요소였던 하천의 범람을 신라인들은 하천변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¹¹⁾ 대표적인 숲은 大樹村과 모랑부의 冬老樹 그리고 경주분지내의 雞林·天鏡林·文仍林·神遊林·論虎林·泉林村·入都林·文熱林·惠藪·樸樹 등이며, 문헌에 등장하는 숲으로는 王家藪·裨補藪·南亭藪·五里藪·閑地藪·林井藪 등이다.¹²⁾

조선시대의 숲은 신라의 숲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부분적으로 신라시대의 숲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중에서 雞林과 論虎林, 南亭藪는 계림과 황성공원, 오릉 숲으로 아직까지 남아 경주시민의 중요한 휴식,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그림 5. 신라의 계림과 노호림(황성공원 숲)의 현재 모습

8) 이기복, 도시 상징성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최길성, 신라인의 세계관, 신라사회 신연구, pp.239-258

10) 김한배, 우리도시의 얼굴 찾기, 태림문화사, 1998, p61

11) 이기복, 신라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적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31-41

12) 이근직, 신라 왕경의 성립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제15권 4호 통권 48호, 2006.10, p196

4.3 고대 신라왕경의 도시중심

(1) 육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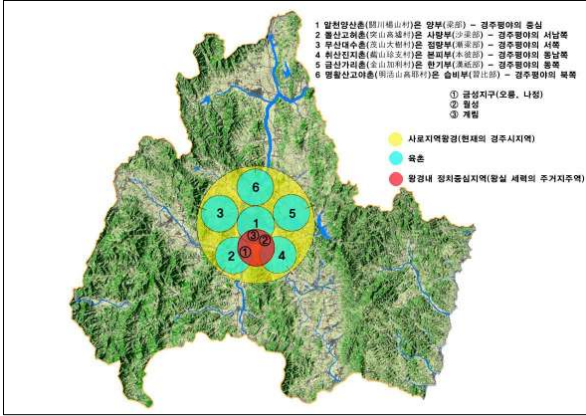


그림 6. 신라 육부촌의 위치 및 왕경과의 관계(13)

6부의 위치와 역학관계는 왕경의 중심 설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6부의 성립과 기원에 대해서는 사료국의 6촌(村)을 6부로 개칭했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학설이다. 6부가 연맹체를 구성하던 신라 초기에 각 부는 독자적인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을 만큼 독자성과 세력이 강했다. 이 당시 신라의 왕은 여러 부의 대표 중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다.

(2) 삼산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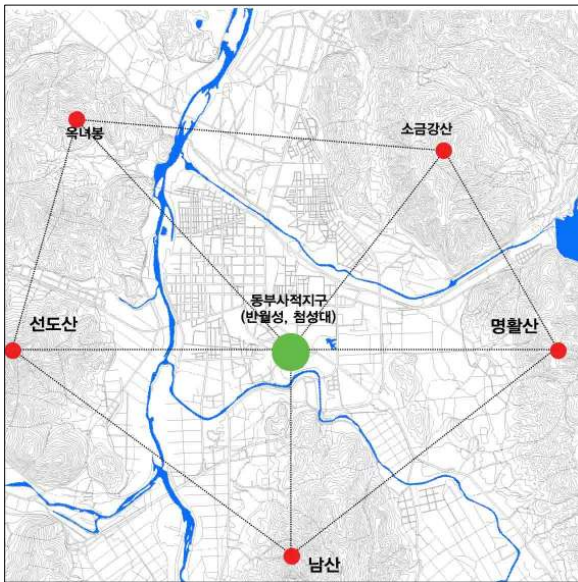


그림 7. 신라의 삼산의 중심

초대 왕조는 먼저 왕국의 격에 맞는 왕성을 건설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 위치는 신라의 성산(聖山)인 남

산을 주산으로 삼고 좌우로 선도산과 명활산의 중심 지역을 결정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 중심을 현재 지도상에 표시하면 반월성과 첨성대가 있는 동부사적지로 나타난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반월성과 첨성대, 계림, 대능원 지역으로 그 유적의 가치로 보아도 이 지역이 경주 삼산의 중심지역 이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산의 중심구조는 신라통일 이전의 백제는 물론 일본과 이루 고려시대에 까지도 전승되어 풍수지리 도형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한국 도시경관의 독자적인 골격구조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삼산 중심의 입지방식은 우리나라 역사상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고유한 전통으로서 고려, 조선의 풍수지리 기본모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삼산도형과 풍수지리의 형국은 지형의 방위로 보아 정반대의 좌향(坐向)을 취한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3) 신라초기 왕성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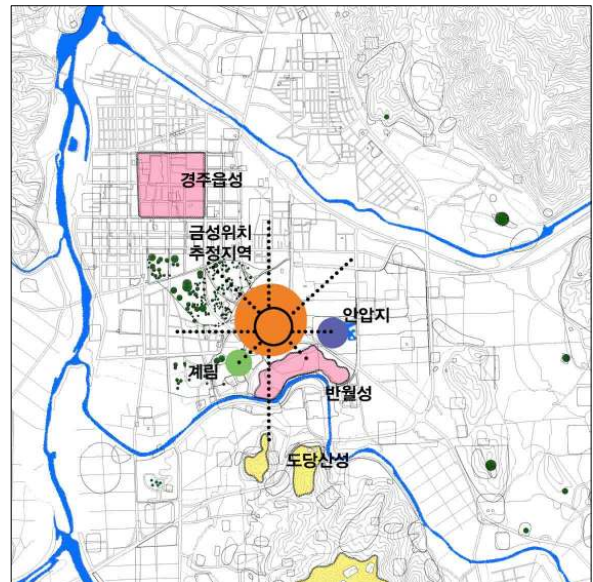


그림 8. 신라 초기 왕궁의 추정지역

고대도시의 구조에서 집권자의 궁성의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즉, 대부분의 고대도시에 있어서 왕궁은 그 도시의 핵이자 물리적 중심을 차지하며 심지어 전 도시가 이 왕궁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까지 보인다. 고대 서라벌의 경우 금성(金城)의 위치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어느 곳에서도 정확히 표현되지 않고 있어 학자 간에 그 설이 구구하다.

위의 설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계림과 안압지, 반월성 등 모두 동부사적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 궁성의 위치는 동부사적지 부근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 금성의 자리로서 삼산도형의 중심에

13) 이종욱, 신라 상고시대의 육촌과 육부에서 정리 인용

위치한 첨성대 일원은 그 당시 인근의 계림이라는 신라건국의 신화적 숲과 더불어 고대의 정치·종교적 신성구역을 형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대는 비교적 넓은 공지부분이며, 주변에 신라시대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현 대능원을 비롯하여 고분군과 반월성이 밀집되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4) 신라왕경 구성의 중심점으로서의 첨성대

첨성대가 조성된 시기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선덕여왕(27대)조로 천체관측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전외식의 장소였다는 설¹⁴과의 그림자로 시간과 방위를 측정하는 해시계, 측경대(測景臺)였다는 주장¹⁵ 및 불교 우주관의 중심축인 수미산(須彌山)을 상징한 구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¹⁶ 등 다양한 설들이 있다. 실제 중앙아시아나 인도에서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묘탑 스투파(STUPA)가, 고대 중국에서는 천문대인 명당이나 세실이 도시시설 배치의 중심점 역할을 해왔다.¹⁷ 가설로 첨성대와 경주도시의 관련을 검토해 보면 신라왕경의 조방제의 격자형 가로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¹⁸

4.4 고대 신라의 도시형태

(1) 고대 신라의 도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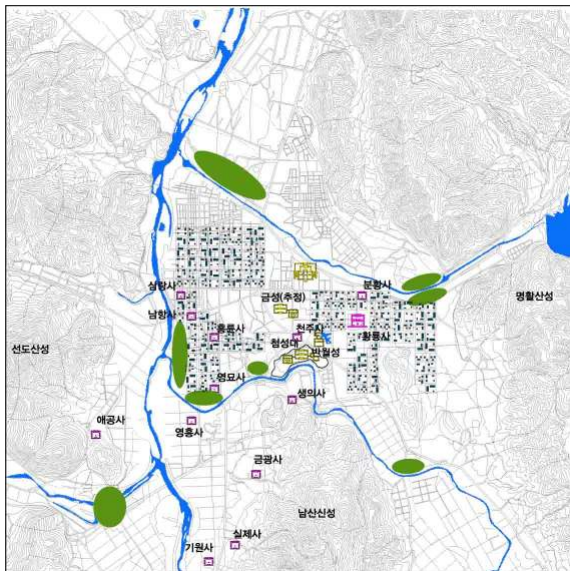


그림 9. 고대 신라의 도시구조

14) 박성래, 한국인의 과학정신, 평민사, 1993
 15) 전상운, 한국의 고대과학, 탐구당, 1972
 16) 이용범, 첨성대론의, 진단학보 제38호, 진단학회, 1974
 17) 米田美代治(1944)저 신영훈(1976)역, 한국상대 건축의 연구,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1944
 18) 김한배, 우리도시의 얼굴 찾기, 태림문화사, 1998, p73

위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고대신라의 도시구조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첨성대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반월성이 북쪽에는 금성이 있어 정치의 중심을 이루고, 도시의 중심부에 이때부터 대규모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의 승인으로 국가에서 불교를 장려하여 상당수의 사찰이 도시에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넓게 주거가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대 신라의 도시형태

남산과 선도산, 명활산의 삼산 중심인 경주분지에 도시가 입지하게 되며, 3개의 하천으로 싸인 부지에 도시가 구성되어 있다. 분지의 내부에는 남산을 제외하고는 구릉이 없어 커다란 평야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로 사방의 어디에서도 산을 배경으로 하는 시각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림 10. 고대 신라의 예상 도시경관

도시의 구성은 이 황룡사와 분황사가 건설되던 시점에는 도시의 격자형 구성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고대 신라 왕경의 도시형태는 6부가 연합한 자연스러운 도시 형태에서 음양오행과 만다라의 개념에 의한 삼산의 중심과 왕궁과 첨성대를 중심으로 도시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다른 도시와는 다른 성곽이 없이 삼산의 성곽으로 나성을 대신하는 형태가 되었다. 도시의 가로는 후반기가 되면서 중국 등의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정방형의 도시가로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4.5 고대 신라의 대표경관

(1) 왕궁

도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왕궁은 고대 신라의 경주를 대표하는 도시의 경관 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건축의 규모나 상징성, 입지조건을 보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왕궁이었다. 따라서 첨성대를 중심으로

한 금성과 반월성은 고대 경주의 대표경관이다.



그림 11. 고대 신라 경주의 왕궁

(2) 고분

초기 신라의 역대 왕들의 무덤들이 왕궁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도시 경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고분들은 현재까지 남아 경주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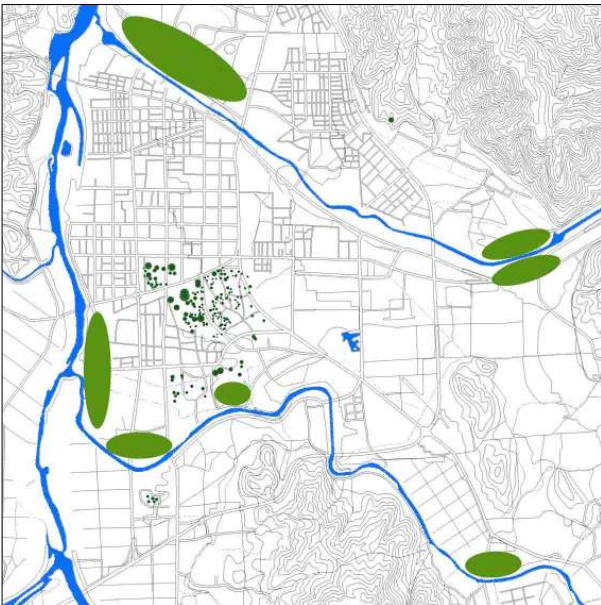


그림 12. 고대 신라 경주의 고분

(3) 사찰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된 불교는 국교로 지정되면서 호국불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경주의 대표적인 경관이 된 국가사찰인 황룡사 등 여러 사찰들이

도심에 건축되면서 경주의 대표경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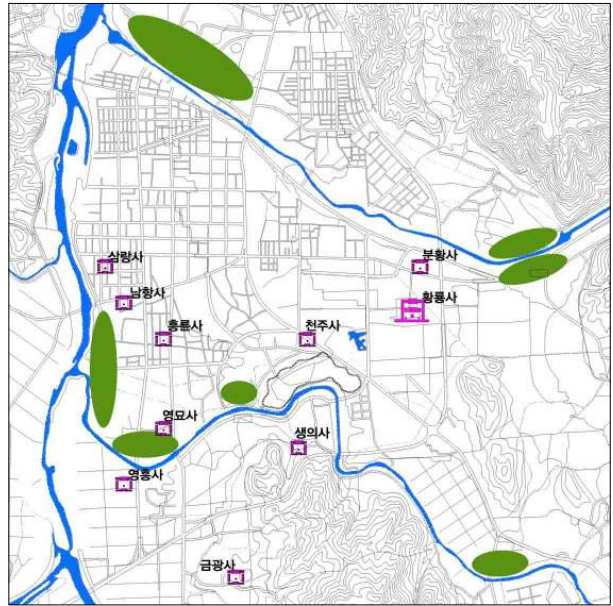


그림 13. 고대 신라 경주의 사찰

(4) 가로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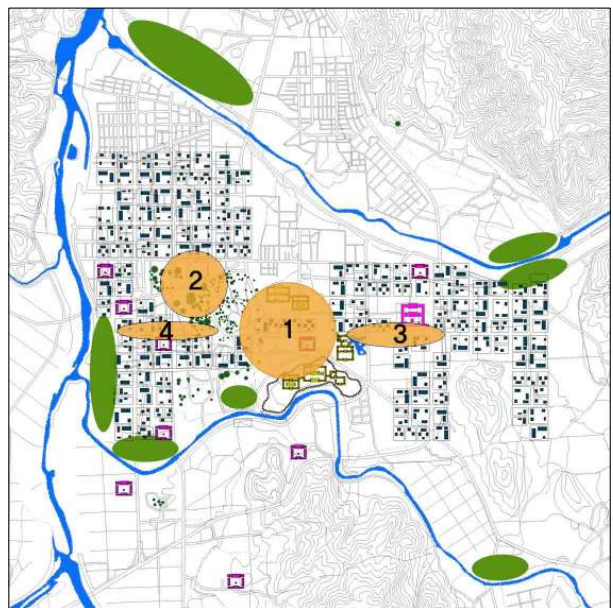


그림 14. 고대 신라 경주의 가로장소성

고대 신라의 왕경에도 가로장소성은 존재했을 것이다. ① 첨성대를 중심으로 금성과 반월성의 가로는 경주의 중심으로서의 장소성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왕족과 정부의 관리들이 거주하고, 외국의 사신들이 오고가는 이곳의 장소성은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을 것이다. ② 역대 왕들의 고분군들도 경주의 중요한 가로 장소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산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대접을 받는 지역으

로 고분의 수와 규모에 경외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③ 도시의 랜드 마크 역할을 하는 황룡사 위치 가로에도 장소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여러 사찰들이 모여 있고 경주의 왕궁으로 접근하는 도로인 가로의 장소성도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 고대 신라왕경의 역사경관 정체성

초기 신라시대 서라벌의 도시경관은 사머니즘적 세계관에 의한 삼산도형의 삼각 구도와, 만다라의 세계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첨성대와 같은 인공적 의미 매체와 주변의 산을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매체를 기준으로 가로를 구성하여 위정자의 정통성과 종교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도시형태가 조성된 것이다.

고대 경주의 대표경관 중 가장 강력한 대표경관은 자연요소인 산이다. 한국도시경관의 지속적 특징인 산의 근본이 되는 삼산은 후대의 풍수지리설, 근현대의 자연환경으로 국립공원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으로의 기능으로 바뀌었으며, 이와 짝을 이루는 대조적 자연요소로서의 세 개의 하천과 함께 대표경관 중의 자연적 유형을 구성한다. 다음은 종교 및 정치에 관련된 역사 경관요소이다. 도시 조성 초기부터 도시의 지형, 종교, 사상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궁성, 사찰, 고분 등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시대와 정치체제, 종교관등이 바뀌면서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 새로운 양식의 정치, 종교 시설들과 새로운 도시경관 요소들과 중첩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상징적인 위치와 시각적 비중을 통해 도시경관의 강력한 구성인자가 되고 있다.

6부가 연합한 읍락도시의 자연스러운 도시 형태에서 음양오행과 만다라에 의한 삼산 중심과 왕궁과 첨성대를 중심으로 도시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국내 도시와는 달리 성곽이 없이 주변의 삼산 성곽으로 나성을 대신하는 형태가 되었다.

경주분지의 중심에 왕궁이 구성되고 왕궁의 서쪽에 왕릉들이 모여 있는 고분군이 입지하고 다른 부분에 주거기능들이 입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가로는 후반기가 되면서 중국 등의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정방형의 도시가로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첨성대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반월성이 북쪽에는 금성이 있어 정치의 중심을 이루 중심도시의 중심부에 대규모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의 승인으로 국가에서

불교를 장려하여 상당수남쪽에찰이 도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도시의 폭 넓게 주거가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의 경관은 산악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인식을 주도하였으나 후기 황룡사 탑의 등장으로 강력한 랜드 마크 기능이 생기면서 이중적인 인식구조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즉 주변의 산과 사찰의 탑이 중요한 도시의 인식구조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고대 경주의 도시형태는 삼산, 만다라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방형의 정형적 형태였으며, 이 방형의 도시형태를 바탕으로 자연 질서에 호응하는 풍수지리의 배치에 의한 건축형식 주례고공기의 정형적 형태가 절충적으로 도시형태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막 시작되는 조방제의 그리드 형식은 앞으로 나타날 경주 정체성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그리드형식의 내면에는 불교와 유교 등의 사상들이 중첩되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시대의 국교인 불교는 경주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사상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대 경주의 경관 정체성은 자연환경의 상관성과 그리드로 나타나는 도시형태, 불교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Lynch, The Image of The Time and Place in Environment Design, M.I.T. Press, 1990
2. 김한배, 우리도시의 얼굴 찾기, 태림문화사, 1998
3. 박태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 제18집, 충남대학교, 1987
4. 이상구,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 현용준, 신라종교의 신연구, 경주시, 1984
6. 이기영,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본 7-8세기 신라 및 일본의 불국토 사상, 한일문화교섭사 연구
7. 최길성, 신라인의 세계관, 신라사회 신연구
8. 이규목, 도시 상징성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이기봉, 신라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적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0. 이근직, 신라 왕경의 성립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제15권 4호 통권 48호, 2006.10
11. 이종욱, 신라 상고시대의 육촌과 육부
12. 米田美代治(1944)저 신영훈(1976)역, 한국상대 건축의 연구,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1944

논문접수일 (2011. 2. 10)

심사완료일 (1차 : 2011. 2. 23, 2차 : 해당없음)

게재확정일 (2011. 2. 28)